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칼럼)-히토류 장전한 중국, 방아쇠 당길까?
- ◇ (초점)-中 히토류, 미-중 무역전쟁에서 주요 협상 카드 될 수 있어
- ◇ (칼럼)-2016년 1월 '데자뷰'..한은 총재, 그때처럼 이번에도 달라질까
- ◇ (초점)-달러/원 1200원 직전 '오버슈팅' 규정한 외환당국, 그 이유는?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런던에서 사임 결정을 발표하면서 울먹이고 있다. (로이터/토비 멜빌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5월24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1,188.4	0.6%	-6.1%	-4.1%	유로	1.1202	0.4%	-2.3%	-4.4%
100엔 대비	1,083.8	0.1%	-6.3%	-6.9%	엔	109.29	0.7%	0.2%	2.8%
유로 대비	1,327.2	0.4%	-3.8%	0.2%	위안	6.9116	-0.4%	-0.6%	-5.3%
위안 대비	171.69	0.5%	-5.8%	1.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8(%)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8(%)	다우존스	25,585.69	-0.7%	9.7%	-5.6%
코스피	2,045.31	-0.5%	0.2%	-17.3%	나스닥	7,637.01	-2.3%	15.1%	-3.9%
코스닥	690.03	-3.4%	2.1%	-15.4%	S&P500	2,826.06	-1.2%	12.7%	-6.2%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MSCI APxJP	499.38	-0.7%	4.7%	-16.2%
국고채 3Y	1.643%	-2.7bp	-17.4bp	-31.8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국고채 5Y	1.679%	-2.7bp	-20.5bp	-45.9bp	미국채 2Y	2.168%	-3.2bp	-33.0bp	60.7bp
국고채 10Y	1.792%	-3.0bp	-15.6bp	-52.1bp	미국채 10Y	2.324%	-6.9bp	-36.7bp	28.0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8(%)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8(bp)
유가(WTI)	58.63	-6.6%	29.1%	-24.8%	한국 5Y	34.73	0.65	-3.34	-13.74
금(현물)	1,284.65	0.6%	0.1%	-1.5%	일본 5Y	21.50	0.67	-0.29	-3.34
TR상품지수	2,304.13	0.3%	-2.8%	0.0%	중국 5Y	51.47	3.27	-15.00	16.96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로이터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국내 주요 주간 일정

<5월 27일(월)>

- 특이 일정 없음

<28일(화)>

- 한은, 5월 소비자동향조사(06:00)
- 기재부, 범정부 추경 TF 개최

<29일(수)>

-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 평가결과(03:00)
- 한은,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06:00)
- 한은, 1/4 분기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12:00)
- 기재부, 경제활력대책회의

<30일(목)>

- 한은, 4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12:00)
- 한은, 1 분기중 주요 기관투자자의 외화증권투자 동향(12:00)
- 기재부, 6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5월 발행실적(17:00)

<31일(금)>

- 통계청, 4월 산업활동동향(08:00)
- 한은 금통위 정책회의

<6월 1일(토)>

- 산업부·관세청, 5월 수출입 동향(09: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5월 27일(월)>

- 중국, 4월 산업이익(10:30)
- 미국, 영국 휴장

<28일(화)>

- 유로존, 4월 총유동성(M3) 증가율(17:00)
- 유로존, 4월 가계대출(17:00)
- 유로존, 5월 기업환경지수(18:00)
- 유로존, 5월 경기체감지수(18:00)
- 유로존, 5월 소비자신뢰지수 확정치(18:00)
- 미국, 3월 주택가격(22:00)
- 미국, 3월 케이스실러주택가격(22:00)
- 미국, 5월 소비자신뢰지수(23:00)
- 미국, 5월 달러스연은 제조업지수(23:30)

<29일(수)>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20:00)
- 캐나다 중앙은행(BOC) 기준금리 발표(23:00)

<30일(목)>

- 미국, 1 분기 기업이익 잠정치(21:30)
- 미국, 1 분기 GDP 수정치(21:30)
- 미국, 4월 도매재고 잠정치(21:30)
- 미국, 4월 소매재고 잠정치(21:30)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21:30)
- 미국, 4월 잠정주택판매(23:00)

<31일(금)>

- 일본, 5월 도쿄 소비자물가지수(CPI)(8:30)
- 일본, 4월 실업률(8:30)
- 일본, 4월 산업생산 잠정치(8:50)
- 일본, 4월 소매판매(8:50)
- 중국, 5월 NBS 제조업(비제조업) PMI(10:00)
- 일본, 5월 소비자신뢰지수(14:00)
- 일본, 4월 건축주문(14:00)
- 미국, 4월 개인소득(21:30)
- 미국, 5월 시카고 PMI(22:45)
- 미국, 5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23:0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외환시장>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최근의 일방적인 상승 압력은 완화하겠지만 하단 지지력도 유지되는 상·하 양방향으로 경직적인 흐름을 나타낼 전망이다.
- 시장에서 예상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180 원-1195 원이다.
- 달러/원 환율은 외환 당국의 전방위적인 상승 억제 의지를 확인한 탓에 일방적인 심리적인 쓸림 현상은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 이런 가운데 시기적으로도 월말이 들어 있는 주인 만큼 수급상 공급 우위 여건이 형성될 여지도 마련됐다.
- 하지만, 본격적인 달러/원 환율의 조정 가능성을 점치기에는 여전히 대내외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 미-중 무역협상 관련 경로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위안화 움직임 못지않게 원화도 국제 시장 변동성에 특별히 취약한 통화로 꼽히는 만큼 대대적인 추세 전환을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 또한 외환시장 수급 상황도 원화 강세 전환에 대한 확신을 갖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 수출 부진에 따른 달러 공급 약화 속에 특히 이번 주는 이벤트적인 달러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오는 28일 MSCI 신흥국지수 내 중국 A주 편입이 예정돼 있는데, 이에 따른 달러 수요가 뒤따를 수 있다.
- 한편 원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국내 재료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31일)와 5월 수출입 동향 발표(6월 1일)로 모두 주 후반에 예정돼 있다.
- 물론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잡음이 나올 경우 달러/원 환율의 변동성은 언제든지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위쪽으로 내달렸던 달러/원 환율의 흐름은 다소 잦아질 전망이다.

<채권시장>

- 이번 주 채권시장은 주후반에 예정돼 있는 금융통화위원회 결과에 따라 큰 폭의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채권시장 참가자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지난주 시장금리가 모든 만기에서 연

저점으로 떨어졌다. 이자율스왑(IRS) 시장은 두 번의 금리 인하를 선반영하고 있다.

-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 상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6월 1일 하루 전에 금통위 회의가 열리는 만큼 이 총재가 이전처럼 금리 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시장에선 금리 인하 소수의견 여부에 따라 변동 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나올 경우 시장금리가 추가 하락할 수 있지만 기준금리가 만장일치로 동결될 경우엔 일부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 하지만 기준금리의 다음 방향이 인하라는 데 대한 시장의 인식을 감안하면 시장이 조정을 받는 다 해도 그 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 3년물 기준 1.60%를 고점으로 보는 기관들이 많은 만큼 그보다 앞서 솟을 정리하고 롱으로 돌리거나 새롭게 롱포지션을 구축하는 곳들이 늘어날 수 있다.
- 만약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나온다면 시장은 7월 또는 8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프라이싱을 할 수 있어 금리 하단이 더 낮아질 수 있다.
- 주목할 만한 경제지표는 28일에 발표되는 소비자심리지수, 31일에 발표되는 '4월 산업활동동향'이다. 특히 생산과 소매판매(소비), 설비투자 등 3개 경제지표가 모두 반등했던 지난 3월 산업생산 흐름이 4월에도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칼럼)-희토류 장전한 중국, 방아쇠 당길까?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런던 (로이터) -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분쟁 격화 속에서 세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희토류 생산을 무기화하려고 하는 것일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주 초 중국 간자우를 방문한 것은 두 가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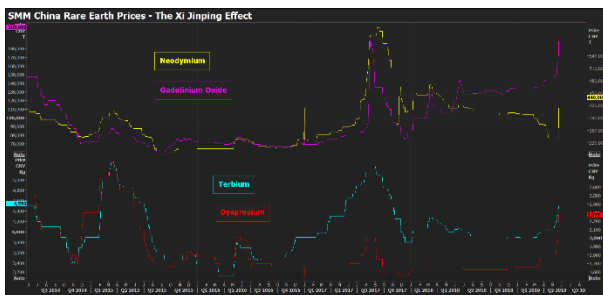
시진핑은 중국 관객들을 위해서는 중국 위두에 잠시 들렀다. 위두는 1934년 중국 공산군이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승리를 얻어낸 대장정의 출발지이다.

위두 방문을 통해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지만 결국 중국은 승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시진핑은 미국에게 보여주기 위해 JL MAG 희토류가 운영하는 희토류 생산 공장을 시찰했다.

'너희가 화웨이를 제재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려면 너희들의 현대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근사한 금속들을 모두 누가 공급하는지 고려해 보라'는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한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문으로 전세계 희토류 가격과 관련 주식이 오르며 메시지는 더욱 강조됐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장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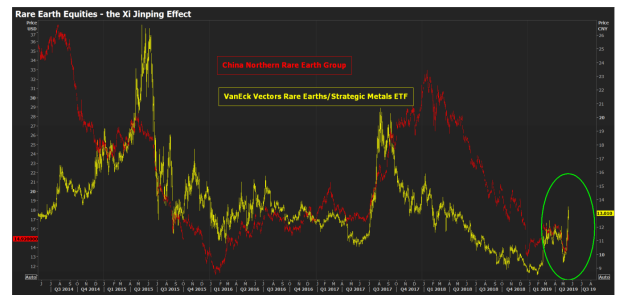
무역전쟁에서 무기가 될 수 있는 희토류는 이미 장전되어 있다.

중국은 세계적인 공급망을 지배하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지난해 채굴량에서 중국은 적어도 71% 이상을 차지했으며, 가공된 희토류 화합물에서는 더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미국은 2014~17년 전체 희토류 수입에 80%를 중국에서 조달했지만 USGS는 중국을 제외한 3대 공급업체인 에스토니아, 프랑스, 일본에서 수입한 것 또한 중국 원재료에서 생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년 캘리포니아에서 마운틴 패스 희토류 광산이 재개통된 것 또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USGS는 마운틴 패스 광산이 2018년 1만 5000톤을 생산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광산은 가공을 위해 희토류를 중국으로 보내고 있다.

이 희토류는 현재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부과한 25% 관세 대상이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지난 전쟁에서의 교훈

시진핑 주석이 방아쇠를 당길까?

중국은 이전에도 방아쇠를 당겼지만 이는 발등을 찌는데 그쳤다.

중국의 2010년 희토류 수출 금지는 자유분방하기로 악명높은 중국의 희토류 분야를 통제하기 위한 내부 정책 결정을 통해 이뤄졌다.

그러나 세계의 다른 국가들은 이를 중국과 동중국해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두고 갈등을 보이고 있는 주요 희토류 소비국인 일본을 겨냥한 무역 공격으로 받아들였다.

중국의 수출 금지는 세 가지 면에서 역효과를 낳았다.

첫 번째로 이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이 2015년 모든 수출 규제를 풀도록 했다. 중국이 다자간 무역 자격에 대해 부풀려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WTO 무역 소송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둘째로 수출 금지로 희토류 가격은 크게 상승했다.

희토류 생산업자들을 통제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으로 불법적인 희토류 생산은 늘었다.

이후 가격은 다시 하락했지만 불법 생산량은 줄지 않았다. 중국은 여전히 이 희토류 생산업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달 미얀마에서 희토류 광석 수입을 금지한 것은 암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중국 희토류가 중국 남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얀마에서의 환적 과정을 통해 세탁될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재는 제품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켰다.

혼다와 토요타와 같은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중국이 생산한 희토류를 덜 사용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 차량에 동력을 공급하는데 사용되는 자석을 재설계했다.

최종 사용자들의 반응 또한 이어지고 있다.

아우디가 최근 출시한 E-tron SUV는 영구 자석을 사용하지 않는 유도 모터를 사용한다. 이는 현재 럭셔리 자동차 시장에서만 사용될 수 있지만 희토류의 필요성을 완전히 제거한다.

◆ 다음 전쟁 준비

중국이 희토류 실탄을 실제로 발사하지 않으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언제든 발사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데에는 세 가지 좋은 이유가 있다.

지난 희토류 전쟁 이후로 변한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어차피 중국의 희토류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점점 분명히 하고 있다.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부터 레이저 제조 및 암 치료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희토류는 미국에 게 있어 국내 또는 우호적인 공급망에 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광물 목록의 맨 위에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적대적인 공급자들로 인식되는 국가들의 수입품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2019 회계연도 국방 수권 법안 개정안은 미국 국방부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에서 네오디뮴-철-보론 자석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목표는 사마륨-코발트 배터리와 같은 이미 통제된 제품처럼 "공급 부족이 많은 국방부 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을 늘리고 외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다.

한편 미군의 중요 물자 재고를 관리하는 국방부 군수국은 희토류 및 배터리 화합물 전구체 재고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2019 회계연도 매입 계획에는 희토류 최대 415톤, 희토류 자석 100톤과 이보다 적은 양으로 디프로숨, 유로퐁, 이트륨이 포함되어 있다. 모두 군사적 용도를 가지고 있다.

◆ 큰 위험부담

그러나 미국 민간 사회는 여전히 중국의 희토류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마운틴 패스 광산의 재개통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작은 걸음이다. 호주의 리나스와 텍사스의 블루라인이 발표한 국내 희토류 가공 시설 설립 가능성은 이보다 더 큰 걸음이 될 것이다.

중국 정부의 관점에서 이러한 발전은 희토류 카드가 시간이 갈수록 위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여전히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금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그러나 지금 희토류를 무기화한다면 2010 년과 비슷한 정치권과 시장의 반발을 일으킬 것이다.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에게 지나치게 위험부담이 큰 도박이다.

더티 해리 영화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인용하자면, 행운이 따른다고 느끼는 자는 누구인가?

(초점)-中 희토류, 미-중 무역전쟁에서 주요 협상 카드 될 수 있어

워싱턴 (로이터) - 희토류는 군용 제트 엔진, 위성, 레이저 등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아이폰과 전기 자동차 모터 등 광범위한 소비자 제품에서 사용된다.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주요 희토류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희토류는 어디에 사용되나?

희토류는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사용되는 충전식 배터리, 파인 세라믹, 컴퓨터, DVD 플레이어, 풍력 터빈, 자동차와 정류소의 축매, 모니터, 텔레비전, 조명, 레이저, 광섬유, 초전도체 및 유리용 광택제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 등 일부 희토류는 전기 자동차용 모터에서 중요하게 사용된다.

◆ 군사 장비에서 사용되는 희토류

일부 희토류는 레이저, 제트 엔진, 미사일 유도 시스템, 대 미사일 방어 체계, 위성 등의 군사 장비에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란타넘은 야시 장치 제조에 필요하다.

미국 의회 회계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전체 미국 희토류 수요의 약 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 희토류 수요의 약 9%이다.

◆ 중국 희토류에 가장 의존적인 기업들은 어디일까?

레이시언, 록히드 마틴, BAE 시스템즈와 같은 방산업체들은 모두 유도 시스템과 센서에서 희토류 금속이 사용되는 미사일을 만든다. 이들은 모두 논평을 거부했다.

애플은 스피커와 카메라, 그리고 핸드폰을 진동하게 하는 햅틱 엔진에 희토류를 사용한다. 애플은 희토류가 재활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아주 적은 양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재활용을 통해서 얻어 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진 골츠 전직 국방부 공급망 전문가에 따르면 2010 년 이후 정부와 민간 기업들은 희토류와 희토류를 사용하는 부품들을 축적해 왔다.

그는 일부 공급업체들은 그러한 요소들의 사용을 줄였다고 덧붙였다.

◆ 희토류는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희토류는 란타넘, 세륨,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프로메튬, 사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홀뮴, 에르븀, 툴륨, 이테르븀,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17 개 원소로 한정적으로 매장되어 있다.

희토류라는 이름과는 달리 매장량은 상당히 충분하다. 그러나 깨끗하게 채굴하고 가공하는 과정은 어려워 많은 비용이 든다. 중국은 전세계 희토류 공급량 중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으며 2014~17 년 동안 미국이 수입한 전체 희토류의 80%를 공급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중국은 2017 년 전체 희토류 생산량의 81%를 공급했다.

수입업체들은 2010 년 중국과 일본의 외교 분쟁 이후 희토류 소비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제한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중국이 정치적 이유로 희토류 공급을 중단했다는 일본의 비난은 세계적으로 한 공급자에게 의존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인식시켰다. 그러나 중국은 공급을 중단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37%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공급국은 거의 없다.

캘리포니아의 마운틴 패스 광산은 미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희토류 시설이다. 그러나 마운틴

패스 광산을 소유하고 있는 MP 머티리얼스는 가공을 위해 매년 희토류 농축물 약 5만 톤을 캘리포니아에서 중국으로 보낸다. 무역전쟁 중 중국은 이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다.

호주의 리나스사는 이번주 텍사스에 본사를 둔 블루 라인과 미국에 희토류 가공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희토류는 인도, 남아프리카, 캐나다, 호주, 에스토니아, 말레이시아, 브라질에서도 채굴된다.

◆ 미국 관세는 희토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미국 정부는 희토류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 왔다.

◆ 중국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면?

미국 상원의원들은 5월 미국 내 희토류 공급 발전을 지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재활용 또한 잠재적인 희토류 공급원으로 부상했다.

네브래스카에 본사를 둔 레어 어스 솔츠는 오래된 형광등을 재활용해 희토류를 얻고 있다고 전등 및 수은 재활용 협회가 밝혔다.

(칼럼)-2016년 1월 '데자뷰'..한은 총재, 그때처럼 이번에도 달라질까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고조되면서 국내 통화정책 전망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이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를 놓고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일부에선 '미-중 무역갈등 리스크'가 국내 경제의 성장률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3분기에 기준금리가 전격 인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반면 미국이 금리 동결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데다 달러/원 환율이 급등한 점을 들어 금통위 스탠스가 의미 있게 바뀌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지나간 데이터를 살펴보다가 현재 시점과 2016년 1월의 유사점을 발견하고 상당히 놀랐다.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달러/원 환율이 급등했던 때였다. 금통위에 대한 시장의 기대 수준 역시 비슷했다.

이주열 총재는 어땠을까? 2016년 1월에 그는 완고해 보였다. 하지만 일부 조건에 변화가 생겼을 때 그의 스탠스도 조금씩 달라졌다. 당시 무엇이 그를 변하게 했나?

▲2016년 1월과 2019년 5월 '데자뷰'..결론은 만장일치 동결(?)

2016년 국내 금융시장은 첫 거래일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을 패닉에 빠뜨린 중국 증시 불안 및 위안화 가치 급락 사태와 맞닥뜨렸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 아래로 둔화될 우려가 커졌다는 경고가 나오고 위안화가 빠르게 절하되면서 달러/원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5년 말 1,160 원대에서 움직이던 환율은 새해 들어 4거래일 만에 1,200 원대로 올라섰다.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 국제금융시장의 동요는 이어졌다. 주요국 수익률 곡선은 평탄화됐다. 중국의 부침과 함께 한국 경제가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내 소비와 투자 부진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1분기 GDP가 마이너스 성장한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파장으로 향후 하방 리스크가 커진 현재 상황과 겹치는 부분이다. 달러/원 환율이 한 달새 60원가량 급등하면서 1,200원에 근접한 것도 2016년의 판박이다. 환율이 급등하는 과정에 외국인 대규모 현·선물 채권 매수세가 확인된 것까지 일치한다. 2016년에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도 제동이 걸렸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수준에도 큰 차이가 없다. 2016년 1월과 현시점 모두 금통위가 금리 인

가능성을 인정하는 첫 번째 수순을 밟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처음으로 확인될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라 있다.

2016년 1월 금통위의 경우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시장의 전망은 빛나갔다. 한은이 2016년 성장을 전망치를 기존의 3.2%에서 3.0%로,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7%에서 1.4%로 각각 0.2%p, 0.3%p 씩 낮췄지만, 이 총재는 기술적인 요인을 강조하며 전망치 하향 조정이 추가 금리 인하 기대로 연결되는 것에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대내외 경기 돌아설 때 금리 인하기로 돌아선 이 총재

달러/원 환율 상승폭이 커졌던 2월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는 동결됐다. 하지만 하성근 금통위원이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이 총재는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는 평가에 동의하는 등 기존의 완고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금리 인하의 기대효과가 불확실하고 부작용이 충분히 예견되는 만큼 기준금리 조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월에도 인하 소수의견과 함께 기준금리는 동결됐다. 이 총재는 "현재 금리 수준이 경기에 부담을 주지 않는 완화적 수준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다만 1월과 2월에 수출뿐만 아니라 소비와 투자 등 내수지표마저 한은의 예상 경로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4월로 접어들면서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짝 흔들리기 시작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중단과 중국의 대규모 부양정책 효과로 미국과 중국 증시가 급등세를 타던 시점이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치가 빠르게 안정화되기 시작한다. 2월 29일에 1,245.3원으로 고점을 찍은 달러/원 환율도 4월에는 1,140원대까지 떨어져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또 하나 4월에 특이했던 점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한국판 양적 완화 정책을 편다며 한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전방위적인 금리 인하 압박을 시작한 부분이다.

4월에도 인하 소수의견과 함께 기준금리는 동결됐다. 4명의 금통위원 교체를 앞두고 금리 조정을 기대하긴 이미 어려웠다.

기자회견에서 한은 총재는 향후 경기의 하방 리스크를 인정하면서도 통화정책만 펼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금리 인하 여지가 있지만 정책의 타이밍이 중요하고, 통화정책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재정정책이 전제되어야 금리 인하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이 총재가 금리 인하의 조건을 분명히 제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새로운 금통위원들이 처음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한 5월 금통위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는 동결됐다. 하성근 금통위원의 교체와 함께 4개월 만에 만장일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 총재는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내수지표 중심의 완만한 개선세를 금리 동결 배경으로 설명했다. 다만 과거에도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더 완화적으로 변경했던 것을 언급하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다.

우호적인 대외 여건과 완만한 경제지표 반등으로 채권시장 참가자들의 자신감은 다시 떨어졌다. 금리 인하 시점을 하반기로 늦춰 잡는 기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금통위는 6월에 기준금리를 1.25%로 전격 인하했다. 만장일치였고, 시장 예상보다 오히려 빠른 결정이었다. 정부가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안을 발표하는 등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 살리기에 나선 시점이었다.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2분기 경기가 1분기보다 개선됐다고 언급하며 상반기에 성장을 2.9%를 달성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글로벌 교역 부진 정도가 예상을 상회하고 하반기 기업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하방 위험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2016년의 교훈..'이 총재 스탠스는 달라질 수 있다'

2016년을 돌이켜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 총재는 경기가 가장 부진했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도 컸던 1분기에는 완고한 스탠스를 보이다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경기가 개선세

를 보이고 국내 경기도 반등했던 2분기에 오히려 전격 금리 인하를 단행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직관적으로 보면 달러/원 환율의 하향 안정과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가 확인된 4월 이후에 이 총재가 움직였다고 볼 수도 있다.

현시점에 적용해 보면 달러/원 환율 움직임이 총재를 포함한 한은 집행부의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듯하다.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등 떠밀지 않는 한 한은 집행부가 움직이지 않으리라는 분석도 간과해선 안 된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금리 인하 절대 불가'를 외쳤던 이 총재의 스탠스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초점)-달러/원 1200 원 직전 '오버슈팅' 규정한 외환당국, 그 이유는?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달러/원 환율이 10개월 정도 좁은 레인지에 갇혀 있다가 단 몇 주일 만에 단숨에 1200 원을 향해 내달자 외환당국은 이를 '오버슈팅'으로 규정하고 강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례적으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2일 거의 동시에 구두 개입성 발언을 한 데 이어 달러들은 당국이 고강도 매도 개입을 단행했다고 추정했다. 달러/원 환율이 연중 고점을 뚫어내면서 빅피겨인 1200 원대로 한발 다가선 상황이었다.

미-중 무역분쟁이 화웨이 사태로 확대함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은 더욱 위축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0.2%p 씩 하향 조정하는 등 이래저래 환율이 추가 상승을 모색할 만한 여건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환율의 반응은 과도했다는 게 외환당국의 평가다. 매수심리가 과열된 상황에서 환율이 연고점을 경신한 이후에는 사실상 오퍼 주문이 사라지는 매도 공백 현상까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외환당국은 시장에 쓸림이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한 외환당국자는 "매번 강조하지만, 레벨 자체보다는 시장 심리 불안이나 이에 따른 시장 쓸림을 우려하는데, 어제는 그러한 쓸림이 나타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 관계자는 로이터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강화된 충격 흡수력을 시장이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화가 위안화 움직임을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다고 강조해 시장에 다시 한번 경고를 보냈다. (Full Story)

▲ 수급 쓸림 해석 과도한가

최근 달러/원 환율이 2년 4개월 만의 최고치로 오른 배경을 두고 시장참가자들은 수급 변화를 가장 크게 꼽는다. 특히 수출 부진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축소 여파를 크게 감안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장참가자들은 최근 수출업체를 통한 달러 공급이 이전보다 크게 둔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A 은행 외환딜러는 "수출 부진이라는 말이 체감될 정도로 최근 네고 물량이 적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달러 매수 쪽 수급 변수에 환율은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채권 투자 흐름을 들여다보면 수급 여건을 좀 더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는 있다.

달러/원 환율이 상승하기 시작한 3월부터 외인 투자자들은 국내 채권을 순투자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3월 1.47 조원, 4월 0.53 조원에 이어 이달(22일 기준)에는 약 3.7 조원에 이르는 규모를 순투자했다.

물론 이달 22일까지 외인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해도 국내 주식을 1.2 조원 내다 팔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외인 자금 동향을 볼 때 국내 외환시장 전반에 수급 쓸림 현상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 시장참가자는 "전날에도 외국인 채권 투자 관련 자금이 달러/원 스팟시장에 유입되는 등 최근 외인

채권 투자와 관련한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외환당국이 강력한 경고에 나선 탓에 당분간 달러/원 환율의 상승 압력은 한풀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하면서 오히려 격화할 수도 있는 만큼 원화 약세 기조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시장참가자들은 한동안 수급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B은행의 외환딜러는 "일방적으로 내달리던 환율에 외환당국이 한 템포 식혀 주는 역할을 했다"면서 "이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이 꾸준히 확인된다면 환율은 단기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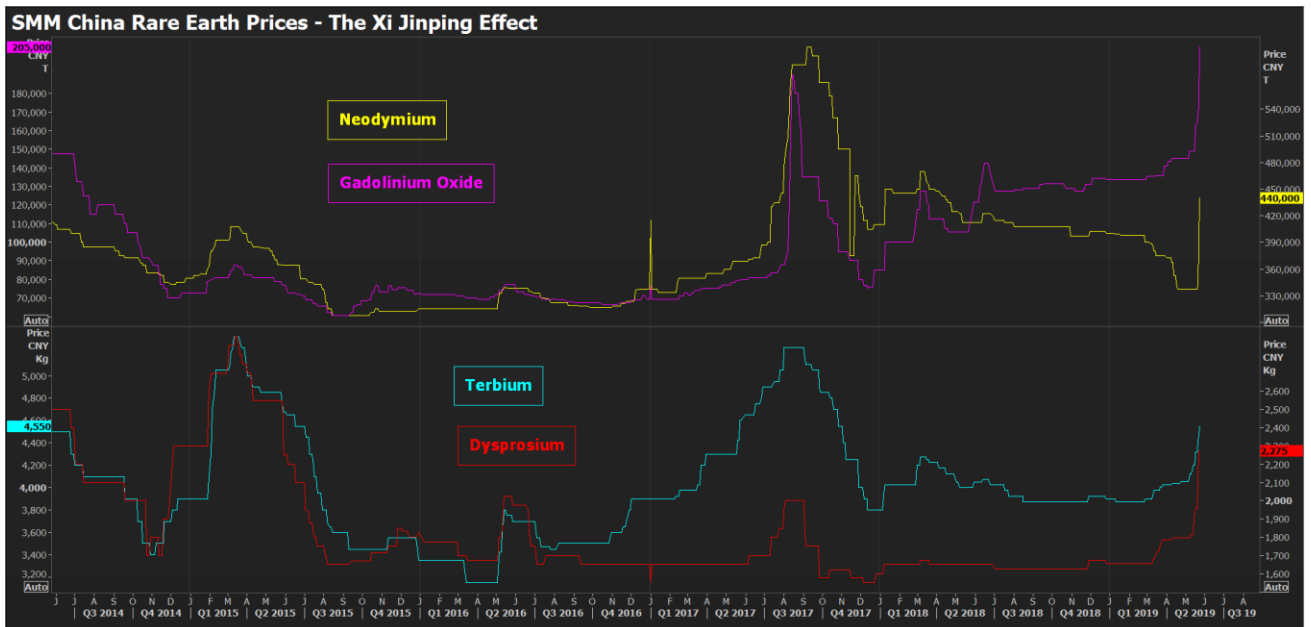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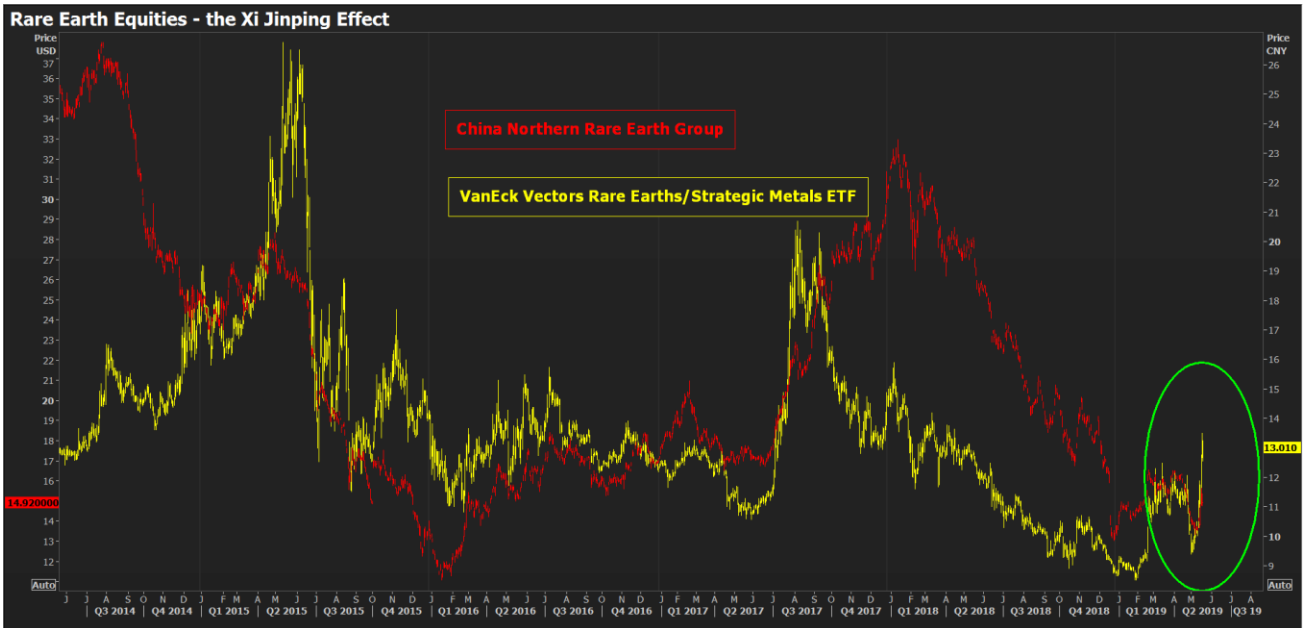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